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만을 수렴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사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목적임> 권좌지)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 길을 묻는 이에게 | 담당자 및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 길을 묻는 이에게



현대불교 제 333호  
서기 2001년 9월 5일 수요일 19

법공양 페이지

## “부모 은혜 알아야 자신의 삶도 원만”

### 철석과 백중의 의미

**문** 며칠 전에 철석을 지냈습니다. 또 9월 2일은 백중날이었습니다. 철석과 백중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뜻을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 우리가 철석날은 견우와 직녀를 많이 상상하시죠. 옛날 이야기는 뭐든 이치가 담겨 있지 않은 말은 없었습니. 옛날에도 까치는 산 사람들을 위해서 인연을 이어 주고, 까마귀는 죽은 사람을 위해서 전달을 해 준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알아둘 것은 전체가 인연 아닌 것이 없지만 철석이라고 하는 자체가 우리가 태어남을 뜻합니다. 모두가 태어나는 길을 말합니다.

우리가 탄생하는 날을 기해서 철석이 라고 하는데, 불성을 만나는 인연이라고 했습니다. 정자 난자가 만나서, 불성이 돌아오게 인연이 되는 그런 인연의 소치를 말하는 거죠. 마치 우리가 산 사람들을 위해서 촛불을 켜는 거나 똑같죠. 백중은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거고, 산 사람들을 위해서는 철석, 말하자면 철석이라고도 하는데 본래 근본은 철석입니다. 그러나 철석이라고 이름을 부르는 그 자체는 바로 이 철석이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것을 누구나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철석이라고 하고 철석부처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동시에 미래로 자꾸자꾸 가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를 연방 뒤로하면서 미래를 향해 전진하고 있습니다. 미래로 전진하는 사람들로써 우리는 촛불을 켜고 철석을 맞이합니다.

다시 말해 불성이 밝으면 모두 다 밝아진다는 뜻입니다. 사는 사람들이 다 밝게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따가 죽는다 하더라도 개의치 마세요. 뭐 꿈을 꾸었는데 꼭 죽을 꿈이라고 험레벌떡 뛰어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꿈이 잘못 돼서 금방 죽는다 하더라도 그냥 놓고 '죽이는 것도 너 살리는 것도 너니까, 그렇게 만들어서 꿈을 꾸게 한 것도 너니까 너만이 잘못되지 않게 할 수 있다.' 하고선 관하고 그만 둘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능력만 갖는다면 그게 다 훌륭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를 돌로 보지 않는다면 철석과 백중은 돌이 아닙니다. 그래서 철석날 마음을 밝게 해서 백중에 모든 조상의 영령들을 위해서 마음을 가다듬으라는 뜻도 됩니다. 하늘이 없으면 땅이 없고, 땅이 없으면 인간이 없듯이, 우리가 부모가 없다면 이 세상에 어떻게 태어나서 이렇게 다닐 수 있겠습니까. 하다 못해 곤충 같은 것도 자기의 부모를 위해서 다리가 찢기고 목이 떨어져도 달려드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면 부모의 은혜를 알아야 자신의 삶도 원만하게 이룰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모든 곡식들에게도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은 뭐냐하면 지수화풍의 도리를 믿고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만이 만물만생이 우리와 더불어 같이 돌아옵니다. 그러니 감사하게 생각하면 은혜가 아니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기에 먹고살지 않습

니까. 옷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옷을 입고 있고, 또 음식을 가공해서 먹게 만들어 놓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으니 모두가 더불어 같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공생·공용·공체·공심·공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다섯 가지 문제를 총동원해서 한마음으로 더불어 살고 있는 이 자체가 바로 여래이며 부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그 도리를 알게 되면 그대로 한 종자에 한 종류니까 살아서도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죽은 사람들도 죽지 않았다가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돌이 아니게 돌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백중날은 내 마음이 자식의 도리로서 조상님들에 대한 생각을 통틀어 하면서, 조상의 은혜를 생각하며 '모든 것이 다 제 마음과 같이 돌아오게 한

더 이상 안 먹습니까? 그런 것이나 마친 가집니다. 이 몸이 없어졌다고 다 끝나고 없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살아야 하고, 지속적으로 배워야 하고, 지속적으로 그 뜻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 업이 많아 사는게 막막 해요

**문** 전생의 업이란 걸 안고서 인간은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 업을 지니고 태어난 것이 운명인가요. 삶의 희망, 보람은 주어진 삶을 자신이 최선을 노력으로 살아가는 데 따르는 것이라고들 하지만 그 노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게 있을 것이고 내 삶에서 나 스스로가 자신감과 의욕이 없다는 게 가장 쓸쓸하고 허

말겨라. 그리고 고티머리, 공식(供食)인데 공식으로 말하면 다 해결이 난다. 업이라는 것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으로 태어나서 어느 누가 한 발짝 한 발짝 떼어놓는 대로 본래부터 아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본래부터 잘 하는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게 업이란 바로 부처가 어디서 났겠습니까?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쓰러짐을 겪어오면서, 또 잘못해 가면서, 잘못된 것을 참회해 가면서 살아가는 도중에 부처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빨리 되지 않는다고 생각으로 조바심을 내지 말고 그 악업들이 모두 차례 차례로 없어지는 거니까 좀 인내가 있고 몰려

없어질 수 있지만, 나오는 자리에서 되놓지 않는다면 입력된 업보, 유전성, 인과성, 윤회성, 세균성, 영계성 등이 없어지기에는 점점 차곡차곡 쌓여지니, 그것을 없애려면 나오는 구멍에다가 다시 입력을 해야 앞서 입력된 게 없어진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자세히 얘기해 드리는 데도 모른다면 어떡합니까?

백을 치면 붓장이 울려야죠! 아니, 사람이 마음과 육신이 작용을 하죠? 몸이 있고 마음이 없어도 안되고, 마음이 있고 몸이 없어도 안되죠? 그러면 생사윤회라는 것이 죽는다 산다 이 양면이 없으면 진리가 아니죠. 생신이 되고 멸하는 양면이 없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봤는데 잘됐다, 잘되다가 안된다 이러죠?

고 꽃이 지고 과일을 열게 합니다. 과일들도 제 나무에서 열린 과일이라야 만이 되고 제 나무에서 익은 과일이라야 만이 제 맛을 내는 겁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이 불법이라는 것은 과일 하나에, 한 나무에 하나가 열리면 만 가지 맛이 나는 이 맛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보같이 살지 말고 정말이지 자유스럽고 똑똑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 이와 같은 도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못났다는 생각마저도 그 자리에 놓고 더 열심히 해나가다 보면 더 깊은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 아미타불 염하는 뜻은

**문** 우리 한국 사람들은 스님들을 뵈옵고 절을 보면 당장 나무 아미타불이 떠오릅니다. 그렇게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하고 자연스럽게 염을 하게 되는데 그 뜻이 어떤 것입니까?

**답** 많은 사람들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염합니다. '나무'라는 것은 무한하게 큰 것을 말합니다. 허공에 꼭 찌는 겁니다. 그래서 평등공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등한 법. 그런데 평등하기만 하면 그냥 돌아다니는 것이 나타날 수가 없고 작용이 안되죠? 그러니까 관세음 보살입니다. 관해 보고, 관해 듣고 이 세상을 살면서 서로 대화를 하고 이라는 것이 관세음입니다. 이 세상을 비롯해서 사람이 살고, 보고, 듣고, 관해 보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이름해서 '관세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주 삼천대천세계를, 대천세계에 들어가는 살림살이를 바로 이름해서 '관세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글자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이름으로만 부르고, 높디랴게 있어 가지고 나를 살려주는 줄 알고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니... 예를 들어서, 어디 취직을 하려 해도 직접 관여하는 사람에게 서류를 갖다 주어야 빨리 성사가 되지 간접적으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이력서를 갖다 주어 봤던 일이 성사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이 따로 있어서 그것을 이루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세음보살이라는 이름을 가진 내 불성 자리에서 서류를 갖다 맡겨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부처님 마음이 이 이름을 들 지어다구요. 동방에는 아축이라고 이름을 지어 놓고, 서방에는 아미타라고 이름을 지어 놓고, 세상에 살아가는 데는 관세음이라고 했고, 지천국에는 바로 지장 보살이라고 이름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부처님이 이름을 지어 놓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름을 지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도 할아버지나, 아버지나, 또는 아들이나 하고 이름을 다 지어 놓고 그대로 여여하게 살고 계시죠? 그 많은 이름들을 항상 동시에 돌아가면서 써먹죠. '여보!' 그러면, '왜 그래!' 그리고 남편 노릇하죠? '결림이 없죠.' '예, 아무개야!' 그러면 '예!' 그리고 아들 노릇 하느라고 아주 깎듯하죠. 그래서 내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리 많은 돈 벌러가 결림이 없이 가다가 '아유! 저렇게 다리가 많은데 어떻게 걸리지 않고 가나!' 하는 소리를 듣고는 그냥 딱 걸려서 못 가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생활하고 잘 가는 건데, 이것이 참선이고 그대로 도인데 그 요량과 자기 몸을 끌고 다니는 자기 자신의 주인 공을 모르기 때문에 울렁울렁 하기도 하고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그렇게 하는 그놈이 누구인가를 안다면 관세음보살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잘 알게 될 겁니다.

☞ 20면으로 계속

業 · 業 없는데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당해요  
공용 · 공식으로  
근본에 맡기면  
업 녹일 수 있어



그림 · 최주현

자리를 하소서.' 하고선 한량없는 부모의 사랑에 감사하는 아리따운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살아 계실 때 용돈 한번 제대로 못 드렸고, 맛있는 거 한 번 제대로 못 사 드렸고, 공양 한번 따뜻하게 해드리지 못했고, 살기 위해서 바쁘게 돌아다니다 보니깐 그랬고, 철을 몰라서 그랬고, 철 들어서서 부모가 안 계시니 이 불효를 어떡합니까!" 하고 지극히 정성을 담아서 부처님 전에 올리는 그 마음이 말입니다. 그 마음이 꽃송이처럼 향기가 퍼져서 온 천지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그 영령들의 마음이 "아이구, 우리 아들의 마음이 이렇게 하늘에까지 향기가 퍼지는구나." 하고 그 퍼지는 걸 느끼면서 그냥 와서 친견을 합니다. 친견할 때 모습이 없으면 친견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꽃을 놓거나 위패를 놓습니다. 거기에 응접하시라고. 그래서 꽃잎마다 응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응접을 해서 "내 아들 장하구나." 그러다가 어느덧 그 조상이 그 도리를 알게 되어 자식의 마음, 공부한 자식의 마음 속으로 탁 들어가 보면 '아하, 내 자식이 따로 없구나. 돌아가면서 부모 자식 노릇하기에 더불어 같이 이 끝없는 자비가 아니라면 어찌 살 수 있겠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한 자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조상들이 이런 법을 알아서 정말 한자리하게 되기를 원하는 자식들의 그 마음이 아주 풀간 데 없이 간절해야 됩니다. 그러니 흔히, 천도재도 하고 다 했는데 왜 백중이고 추석이고 따로 또 해야 하느냐고 묻는데, 우리가 밥 한 번 먹고

무하합니다. 예전부터 전 누군가에게서 평탄치 않은 삶, 힘들게 세상을 살아가겠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예사롭게 들었지만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과정을 보면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힘들었지만 전 그게 운명이라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밝게 살아가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막막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제 업이 아직도 남은 건지 하는 생각이 마음에 무거울 때가 많습니다. 스님의 가르침을 구합니다.

**답** 아무렇지도 않게 업이 많다. 팔자 다 이렇게들 말을 많이 하는데 업이라는 것은 본래 없는 겁니다. 업이라는 것은 없는데, 관념에 업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하니깐 그 업이 무너지지를 알아야 합니다. 업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개별적인 것도 그렇고 포괄적으로 우리가 산다면, 포괄적으로 생각을 할 때 뭐 그냥 한 생각한다면 그냥 한 생각에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일체 제불이 다 안다는 얘기도, 깨달은 분들은 다 안다는 말입니다. 진짜 업이라든가 고는 없어요. 진짜예요. 모두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지 누가 갖다준 게 아니거든요. 갖다준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해결할 수 있다는 소립니다. 우리들 모두 자동적인 컴퓨터가 있다고 맨날 말하죠? 거기에 모든 걸 집어넣어라. 거기에 다 공용(公用)으로

서지 않는 마음이 필요하고, 실천적이고 지혜로워야 만이 그것을 무난히 다 녹일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입력된 것이 나올 시기가 될 때까지 말예요.

### 믿고 놓는게 뭉뚱하다 잘 안돼

**문** 변함없는 가르침과 자비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요즘 제가 제대로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지 자꾸 의심이 들고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나를 이끌어 가는 것이 주인공이 되기를 믿고 놓으려고 합니다만, 좀 뭉뚱하다 다시 안되는 것 같고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못한 탓이겠지만, 못한 사람이나 스님께서 가르침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 요컨대 여러분이 얼마나 자기 주의를 인공을 믿고, 티끌 하나 남기지 않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다 몽땅 그 자리에서 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만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믿는 것만큼 되는 것인데 누구한테도 항거를 하겠습니까? 잘 되다가 안 됩니다. 잘 됐는데, 잘 되니까 마음이 해이해졌는지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자기 할 탓이라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얼마나 잘 말씀하셨는지 모릅니다. 너희 각자에게 다 제각기 컴퓨터가 있어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입력이 되고, 너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입력이 돼서 현실 생활에 차례 차례로 나오느니라. 그러니까 그 나오는 데 다 되 입력을 한다면 앞서의 입력된 것은

그런데 안 되는 것도 거기서 나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산을 향해서 차를 몰고 가는데 부산에서 더 갈 수 없습니다. 이제 내가 내릴 자리는. 그럼 부산에서 되돌아 올 줄을 알아야 되는데 거기서만, 막힌 그 종점에서만 다시금 그대로 믿고 가려고 그러니 그게 됩니까? 한번 스스로 돌려서 다시 오고 가고, 스스로 작용을 돌려야죠. 그렇게 됴므로써 '어! 인제 잘 되는 것을 알았으니 안 되는 것도 법이라는 것을 가르치시구나. 안되는 것도 거기서 나오는 거, 되는 것도 거기서 나오는 거라면 그냥 되게끔 하는 것도 너다.' 이렇게 굴림 줄 알아야 된다고 소립니다. 그렇게 굴림 줄 알아야 됩니다.

기계가 가다가 선 놈을 굴림 줄 모르면, 운전을 못하면 차가 안 갑니다. 인간도 역시 그렇습니다. 용이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도 그런 말이 있죠. 똑똑한 놈보단 좀 어리석고 미련한 놈이 싸울 때 이긴다고요. 그런 말도 있듯이 부처님께서도 아주 모르고 어리석고 그런 사람, 맨날 손가락질을 받던 사람을 빗자루 하나를 쥐서 쓸라고 하고는 그 마음을 띄우게 한 사실도 있듯이, 부처님께서 얼마나 묘하게 가르치셨는데 아니, 왜 우리가 바보같이 살아야 합니까?

할 일을 다 하면서도 함이 없이 해라 이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나무도 뿌리가 있고, 가지가 있고 잎새가 있습니다. 그리

가폭은 안위를 넘겨 고맙은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대행 스님과 신형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1-470-3116)앞이나 한마음 선원 홈페이지(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  
A5신 288쪽  
값 6,000원  
어서이군